



2010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성황리 개최

초·중·고 학생 90개 팀 참가

올리피드는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초·중·고 학생 9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2010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허청과 삼성전자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람객들도 함께할 수 있는 발명체험 부스운영과 삼성전자 홍보관(딜라이트)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주요 시상 내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에는 고등부 철웅성(서울 연합팀), Physika(대전 대성고), 한글누리꾼(대전 중앙고) 팀이 선정되었고, 지식경제부장관상에는 중등부에 무한상상력(고양 연합팀), 나래(대전 글꽃중), 가온누리(서울 연합팀) 팀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초등부에는 L.O.C(부산 연합팀), A + Idol(인천 용현남초), 그린지니어스(부산 연합팀) 팀이 선정되었다.



이수원 특허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우리회 최종협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대회의 심사위원장인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현, 대한변리사회장)은 “학생들의 독특한 창의력과 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다”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가 학생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창의력 계발을 위한 연구의 장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를 통해 배출된 학생들이 대한민국 인재상과 발명 장학생, 그리고 주요 이공계 대학에 입학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내빈들이 개최선언을 하고 있다



참가학생 대표가 심사위원장(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에게 대회참가 선서를 하고 있다



주요 내빈들이 대회장을 관람하고 있다



학생들이 창의력 전시품을 체험하고 있다



미래를 꿈꾸는 발명왕 한자리에!

제2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성황리 개최



주요 내빈들이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주요 내빈들이 학생들의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 허청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회가 주관한 제2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가 지난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창의적인 발명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7,248건의 발명품이 출품되었으며, 1·2차 심사 등을 거친 212건(학생 199건, 교사 13건)의 수상작이 전시되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경사면에서 자동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빋면주차 미끄럼! 이제 걱정 없는 요술 턱」을 발명한 노수완(대전탄방중 2년) 학생이 수상하였으며, 국무총리상은 김유진(대구화남초 6년) 학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은 조현석(대전 서일고 2년) 학생, 조선일보사장상은 이동원(서울 단대부고 2년) 학생이 수상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등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고, 전시회 기간 중에 운영된 「열린 발명교실」, 「학부모강좌」, 「야외 체험부스」 등은 전시회를 찾은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창의력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아울러, 교원발명전시회와 발명아이디어그리기 대회도 전시회 기간 중에 함께 진행되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은상 이하, 장려상 이상 수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발명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 및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발명캠프를 진행하였으며, 금상 이상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창의 발명우수인재 해외영재교육과정으로 일본 연수를 지난 8월 22일부터 28일(5박 6일)까지 실시하였다.



김창룡 특허청 차장이 수상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우리회 최종협 상근부회장이 수상학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야외 체험교실에서 창의력 교육을 받고 있다

* 수상자 인터뷰 86~89면 참고



세계 IP 교육기관장 우리회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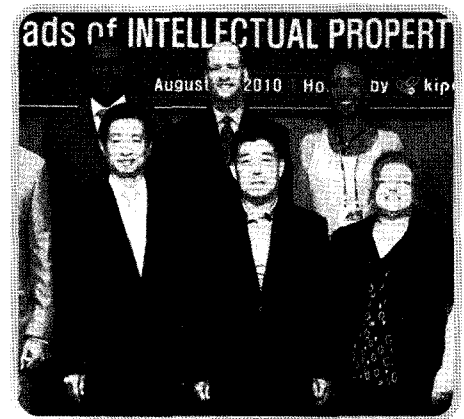
우리회 주요사업 · 글로벌 IP 이러닝 협력사업 소개

제 4차 세계 IP 교육기관장 심포지엄 참석차 방문한 전 세계 IP 교육기관장 및 WIPO · EPO 관계자 18명이 지난 8월 26일, 우리 회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우리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IP 이러닝 콘텐츠 및 이를 활용한 교육과정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특허청 국제지식재산 연수원장을 비롯해 우리회 상근부회장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세계 IP 교육기관장들에게 우리회의 주요사업과 글로벌 IP 이러닝 협력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회와 세계 IP 교육기관장들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0 대학 교수 여름 T3(Teaching the Teachers) 개최

전국 91명 교수들(46개 대학) 높은 학구열 보여

○ 리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주 사인빌 리조트에서 2010 대학 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T3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전국에서 90여 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이번 T3 프로그램은 교육과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T3 프로그램은, 전국 대학 교수들의 특허역량 강화와 중장기적 대학별 지식재산 강좌의 자립화를 위해, 우리회에서 2008년부터 운영해온 교수 대상 지식재산 교육 과정이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T3 프로그램은 특허명세서 작성, 특허정보조사 및 디자인 과정으로 운영되었다. 이론 수업에서 탈피하여 사례와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 교수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최종협 상근부회장은 참여 교수들에게, "T3 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미래 지식산업의 주역인 훌륭한 인재 양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우리회는 하반기에 한국공업화학회와 대한기계학회의 학술대회 기간 중, 지식재산 교육 세션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중 특허기술 가치평가 및 특허명세서작성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노수완 탄방중 2학년

볼펜 원리 이용, 빗면주차 미끄럼 방지장치 개발

“비 오는 날 어머니와 은행에 갔다가 경사진 주차장 데크에서 차가 미끄러져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경사진 주차장에서도 뒤로 밀리지 않는 안전한 주차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볼펜의 원리에서 착안해 발명하게 됐습니다.”

제23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서 ‘빗면주차 미끄럼! 이제 걱정 없는 요술 턱’으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노수완(대전·탄방중 2년) 학생의 소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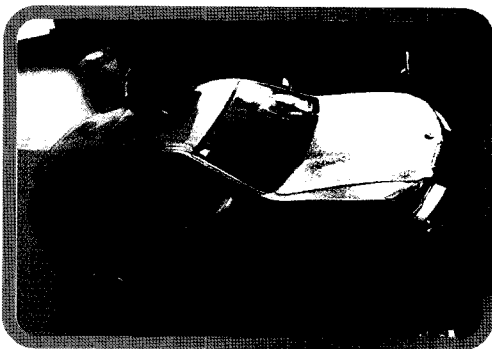
노수완 학생은 “학원이나 은행 등의 일로 어머니와 자동차를 타고 동행할 일이 많은데 도시에서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경사지는 물론 2단, 3단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주차할 때 지켜보면 뒤로 밀리거나 주차 후에라도 혹시 차가 굴러내려오지 않을까 걱정돼 경사지에서도 안전한 주차장치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수완 학생이 발명한 주차장치는 볼펜의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차가 주차할 때 밀게 되는 막대와 차바퀴를 받히는 턱을 ‘푸시버튼’이라는 연결장치로 활용한 것. 즉 차가 빗면에 주차하려고 올라와서 바퀴 앞에 있는 막대를 밀면 막대가 푸시버튼을 누르게 되고 푸시버튼이 턱을 당겨서 턱이 바퀴를 받치게 돼 안전한 빗면주차 가능해진다. 또 출차하려면 앞으로 조금 가서 막대를 누르고 그때 턱이 내려가면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노수완 학생은 “여러 연결 장치와 방법을 고민해 봤지만 저의 작품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러던 중 우연히 볼펜을 누르고 있는데 스위치를 누르면 볼펜 축이 나오고 다시 누르면 볼펜 축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볼펜을 개조하여 연결 장치로 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장치로 어머니와 같은 여성운전자나 초보운전자도 빗면이나 좁은 공간 주차 시 쉽게 주차할 수 있고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빗면 주차뿐 아니라 평면주차장에서도 정면주차, 후면주차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수완 학생은 2009년 남대전고등학교가 주관하고 대전지식센터가 후원하는 ‘발명하이클래스’와 중앙과학관 소속의 ‘창의와 발명을 함께하는 동아리’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다.



(요술턱 위에서 차가 앞으로 미는 막대와 차를 받히는 턱과의 연결장치인 ‘푸시버튼’)

용수철을 이용한 똑똑한 책꽂이

제 2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김유진(대구·화남초6) 학생은 용수철을 이용해 책꽂이를 정리할 수 있는 발명품을 개발했다.

김유진 학생은 정리를 해도 쓰러지는 책들을 보면서 책이 쓰러지지 않은 책꽂이를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얻었으며, 아이디어를 스케치·모형제작·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똑똑한 책꽂이’를 만들게 됐다.

똑똑한 책꽂이는 책의 무게로 용수철에 연결된 한쪽판이 기울어지면서 책도 같이 기울어져서 책이 넘어지지 않으며, 뒤쪽 판이 사선으로 되어 있어 삐곡하게 꽂힌 책꽂이에서 필요한 책의 윗부분을 밀어 올려주는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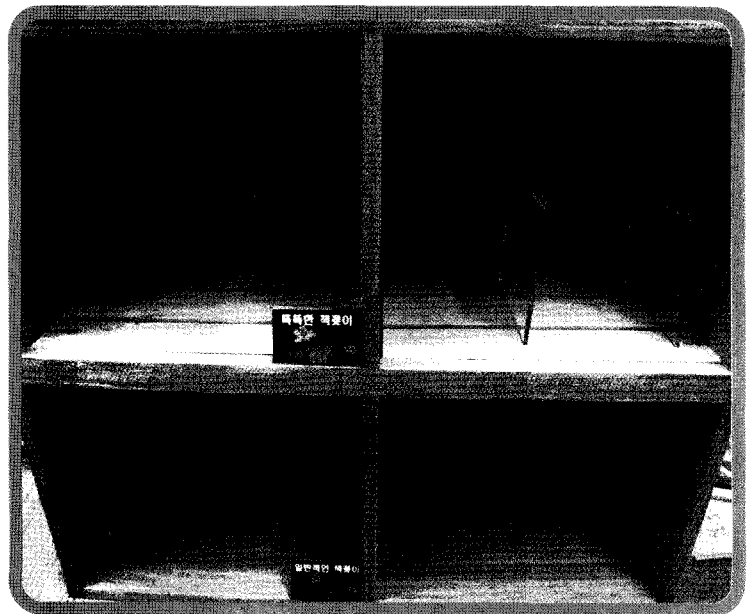
기존의 유사한 발명품들과 달리 ‘똑똑한 책꽂이’는 밑판의 앞부분이 기울어지는 뒷부분을 가려주기 때문에 책꽂이는 항상 안정감 있는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삐곡하게 꽂은 책도 파손 없이 쉽게 꺼낼 수 있으며 책받침대가 책 지지대와 수납공간의 2가지 기능으로 사용돼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가능하다.

김유진 학생은 “일반적인 책꽂이에 용수철만 부착하면 되므로 경제적”이라며 “평소에 관심이 많아 발명관련 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 과학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하여 이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한편 김유진 학생은 과학전람회, 탐구실험대회, 발명대회 등에 참가해 수상한 바 있다.



• 김유진 화남초 6학년





• 조현석
서일고 2학년

윈터치 방식을 활용한 창문 연결장치

“**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순간을 없애려는 노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명품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발명품이 실생활에 적용된다면 비용절감과 함께 위험요소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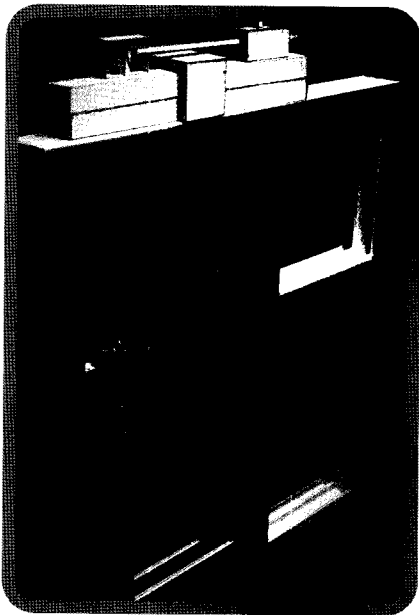
제2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특별상(WIPO 사무총장상)을 수상한 조현석(대전·서일고 2년) 학생은 교실청소 시 환기를 위해 의자에 올라가 윗 창문을 열려다가 넘어져 다칠 뻔한 경험을 계기로 발명품을 개발했다.

이 발명품은 윗 창문과 아랫 창문을 연결해 한 번에 위아래 창문을 열 수 있도록 한 창문 연결 장치이다. 이 장치는 아래창문과 위 창문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키가 작은 사람도 문을 쉽게 열고 잠글 수 있으며, 윈터치 방식으로 창문의 개폐를 쉽게 하여 환풍과 보안기능도 높였다.

창문 연결 장치는 윗 창문까지 손이 닿아야 한다는 점과, 외관 등을 고려해 6차례나 수정 보안을 거쳐 완성했다.

조현석 학생은 “제 발명품을 사용하면 윗 창문을 쉽게 열 수 있으므로 자연바람이 더 많이 들어와 여름철 냉방병 해소와 함께 전력소비도 줄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인 미래 준비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 건축가가 꿈”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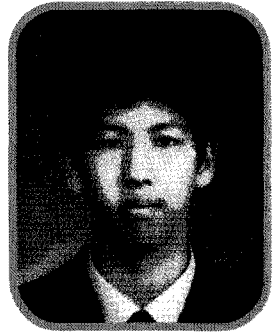
한편 조현석 학생은 이미 2개의 특허출원등록을 하였으며, 한국발명진흥회의 원격발명 교육을 이수한 바 있다.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클린(Clean)소변기

“이 동식 소변기를 활용하면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도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제 발명품이 지자체 등을 통해 이들 환자나 장애우에게 널리 보급돼 공공 복리 활동에 애용된다면 더 큰 보람이겠습니다.”

제2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특별상(조선일보사장상)을 수상한 이동원(서울·단대부고 2년) 학생은 복지에 기여하고 싶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동원 단대부고 2학년

이동원 학생은 수술로 몸이 불편한 아버지께서 소변용무 등의 신체활동이 어려운 것을 보고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환자들을 소변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치를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발명품은 위생도 고려됐다. 몸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의 용무 시 변기나 화장실 바닥에 소변이 튀어 비위생적인 면을 개선했으며, 소변 후에도 센서를 이용해 자동 세척함으로써 냄새를 없애는 물론 주변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고 깨끗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동원 학생은 이 발명품을 '장애인을 위한 소변기'란 이름으로 특허도 출원했다.

